

# 인도 없는 도로 '꼭예 등교'에 가슴 철렁

## ■ 새학기 맞은 아이들과 등굣길 길동무 해보니

### 광주여성민우회 엄마들 이달부터 복귀 5개 초교서 동행 규정속도 안지키고 불법주정차 즐비 '스쿨 존' 무용지물

12일 오전 8시20분 광주시 북구 두암동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삼거리. '등굣길 도우미' 최은하(여·38)씨가 노란색 조끼를 입고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최씨는 광주여성민우회가 지난 2010년부터 여성가족부 지원을 받아 진행중인 '등굣길 아동 길동무' 사업에 참여, 지난 9월부터 두암 초등학교 학생 9명의 등굣길을 동행하고 있다.

올해 광주여성민우회가 추진하는 '등굣길 아동 길동무' 사업에 신청한 학부모들은 맞벌이 학부모 등 100명에 이른다. 30~40대 '엄마' 길동무 7명은 1학기(3~7월) 동안 두암초·효동초·양산초·오정초·삼죽초에서 매일 아이들의 등교를 도운다.

최씨는 한 두명씩 모습을 드러내는 아이들을 지켜보며 숨을 크게 들이 마셨다. "애들 데려다 주려면 평소보다 데시벨(dB)이 10배는 커져야 해요. 이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최씨는 아이들이 모두 모이자 "오늘도 안전하게 학교 가지!"라고 외치며 걸음을 옮겼다.

최씨와 9명의 학생들의 학교까지 20분간 등교 예정이다.

길동무 동행단은 출발 뒤 20m를 지난 횡단보도에서 첫 위험에 부딪혔다. 깜빡거리는 횡단보도 녹색등에서 한 남학생이 손살갈이 길을 가로질렀다. 최씨가 소리치며 말렸지만 헛수고였다.

그는 "아이들은 무조건 앞만 보고 가요. 화물차의 경우 키가 작은 아이는 잘 보이지도 않는데 얼마나 어릴런지 몰라요"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동행단 가운데 1학년이 4명으로 가장 많다. 최씨가 안전한 등굣길을 익히도록 하는데 주력하는 이유이기도 했다.

"무전공원을 지나는 지름길도 있지만 되도록 사람이 많은 큰 길로 다녀야 해

요." 최씨는 아이들에게 당부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는 "모르는 사람이 따라오라고 하면 무조건 주위 어른에게 도움을 청해야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큰 길가에서 옆 골목으로 방향을 바꾸자 인도가 없는 편도 1차선 도로가 나왔다. 순간 승용차 한대가 골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튀어 나왔다. 우르르 뛰어가서 어린이들을 막아주려 급하게 멈췄다. 교차로에는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표지가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운전자가 모퉁이에 불법 주차된 차량에 가려진 아이

를 못 본 탓도 있었다.

이번에는 차 한 대가 겨우 지날 수 있는 소방도로(폭 4m·길이 80m)가 나왔다. 길에는 어린이 50여 명으로 가득 매워져 있었지만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가는 탓에 아이들이 벽에 붙거나 전봇대 뒤로 숨는 위태로운 모습이 연출됐다.

주·정차 금지구역인 학교 앞 스쿨존은 노상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갓길에 차량 4~5대가 줄지어 주차된 것은 기본이고 빌라 단지에서 나온 불법 투기 쓰레기는 아이들의 얼굴을 찡그리게 했다. 인도에서 담배를 버섯이 피우는 중년 남성을 마주치자 몇몇 아이들은 그를 피해 차도로 밀려나 길을 가기도 했다.

동행단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반복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틱(Tic) 장애를 앓고 있는 김민혁(가명·1년)군도 포함돼 있었다. 최씨는 "민혁이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탓에 등하굣길마다 노심초사하고 있

다"며 "아이들의 등학교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 인도에 난간을 설치하고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하는 등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우회가 지난해 길동무를 이용한 학부모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1~3학년이 55명(91.6%)으로 주로 저학년생이 길동무를 신청했다. 가정별로는 맞벌이 학부모가 37명(61.6%)·저소득층 16.6%(10명) 등이었으며 한 부모 가정도 1명 있었다.

한편, 지난해 스쿨존 내 13세 미만 아동 교통사고는 광주 20건(사망 1명·부상 19명), 전남 21건(부상 22명)이 발생했다.

광주해바라기아동센터가 지난 2013년 발표한 '아동 성폭력 실태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114건)가 발생한 장소로 공공장소(22%)·외진 곳(9%)·학교(10%) 등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광주여성민우회 소속 '등굣길 아동 길동무' 최은하씨가 12일 오전 8시30분 광주시 북구 두암초교 인근에서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돕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아이돌봄 광주지회 30명 "임금체불 해결해 달라"

### 광주지방고용청 앞 기자회견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아이돌봄 광주지회 조합원 등 30여 명은 12일 오후 2시 광주시 북구 오룡동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청은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근로계약을 맺은 노동자가 임금 체불을 해결해달라고 낸 진정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광주지회는 아이돌봄 근로자들이 지난 2012년부터 지급받지 못한 시간 외 수당·주휴수당·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과 관련, 고용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지난 1월 노동청에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노동청이 진정을 접수한 날부

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처리를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9월 '지급 근거가 없다'는 기획재정부 감사 지적 등을 이유로 식감된 아이돌봄 근로자들의 교통비(1건당 3000원) 지급 및 4대 보험 적용을 위한 월 60시간 근로 보장 등도 정부에 요구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실질적인 고용주가 위탁기관인지 서비스 이용인인지 여부에 따라 아이돌봄 근로자에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가 달리 판단된다"면서 "고용노동부 지시에 따라 이달 관련 진정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등록된 아이 돌보미는 광주 531명(서비스 제공기관 2곳·전남 831명(=21곳)으로 지난해 9월에는 아이돌봄 노동조합 광주지회가 출범한 뒤 노동자 280명이 가입했다.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47 | 해질 18:38 | 달뜨기 00:34 | 달지기 11:12

봄비 '축축'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4/11	보성	가평	1/9			
목포	가평	6/8	순천	가평	2/9		
여수	가평	5/9	영광	가평	4/10		
나주	가평	3/11	진도	가평	6/9		
완도	가평	5/10	전주	비/눈	후텁	3/11	
구례	가평	0/10	군산	비	눈	후텁	4/10
강진	가평	4/9	남원	비/눈	후텁	2/10	
해남	가평	5/10	홍산도	가평	6/8		
장성	가평	3/11					

### ◇바다 날씨

지역	방향	오전		오후	
		파고(m)	풍향	파고(m)	풍향
서해	남서~서	0.5~1.5	서~북서	0.5~1.5	서~북서
	남서~서	1.0~2.0	서~북서	1.0~2.0	서~북서
남해	남서~서	0.5~1.0	서~북서	0.5~1.0	서~북서
	남서~서	0.5~1.5	서~북서	1.0~2.0	서~북서
제주	남서~서	0.5~1.5	서~북서	1.0~2.0	서~북서
	남서~서	0.5~1.5	서~북서	1.0~2.0	서~북서

### ◇생활지수

수면	60
운동	30
빨래	40

◇주간 날씨

날짜	14(토)	15(일)	16(월)	17(화)	18(수)	19(목)	20(금)
날씨	☀	☀	☀	☀	☀	☀	☀
기온	-1/12	2/15	2/19	5/19	9/14	5/17	5/16

## 벚꽃, 광주 내달 1일 개화 시작...둘째주 절정

### 여수 2일·목포 4일 첫 꽃망울

로 예상된다.

한편, 광주·전남지역은 봄비가 그린 주말부터는 완연한 봄에 접어들겠다.

기상청은 "13일 광주·전남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오후까지 봄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도~5도, 낮 최고기온은 9도~13도로 예상강우량은 5~10mm.

주말인 14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 4도~영상 1도로 다소 쌀쌀하겠다. 하지만, 낮 기온이 7도~12도로 점차 기온을 회복해 이후 평년기온을 웃도는 완연한 봄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올해 광주·전남 지역 벚꽃 개화 시기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하루 정도 빠르겠으며, 지난해보다 5일 정도 늦을 것"이라고 12일 예보했다.

벚꽃 개화일은 오는 31일 완도를 시작으로 광주가 4월1일, 여수 4월2일, 목포 4월4일 순이다.

개화로부터 일주일 뒤 꽃이 절정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오는 4월7일~11일이 벚꽃 나들이 최적의 시기가 될 것으로

## 16일 '민방위의 날'...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국민안전처는 16일 오후 2시 제397차 민방위의 날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장사정포나 미사일 도발 등 공습상황에 대비하는 주민대피훈련으로 전국 읍 이상 지역에서 시행한다.

절경지역은 면지역을 포함한다.

전국 828개 주요 기업은 비상사태 발생을 가정 한 수습훈련을 민방공대피훈련과 함께 실시한다.

전국 소방관서 주관으로 주요 상습정체구간에서는 실시간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벌인다.

훈련 당일 오후 2시 정각에 훈련공습경보가 발령되면 15분간 주민이동이 통제된다. 주민은 민방위 유도요원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지하대피소나 지하보도 등 공습상황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면 된다.

200억 한정

## 아파트 담보대출 및 분양 잔금대출

# 특별 한시판매

최저 연 3.3%~

상기 금리는 APT담보대출 기준이며, 담보물건 및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근저당권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근린상가 단독주택 나대지 원룸

담보 비율 : 최대 70%  
최저 연 3.8%~

신용대출 (급여소득자) (연금수급자)

대출한도 : 최대 5,000만원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  
대출기간 : 최대 5년  
연금리 : 최저 7.0%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옆) |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

## 골목상권 정책자금대출

# 대출출시!!

연 이율 1.25~1.4%

대출기간 3년/5년  
최 고 2천만원

■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사업장 및 거주주택)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확인서, 신분증